**[신령한 복]**  2020.04.26

엡 1:3-6 정성록 목사님

엡 1:3-6

1.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2.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1)](https://www.bskorea.or.kr/bible/korbibReadpage.php?version=GAE&book=eph&chap=1&sec=1&cVersion=&fontSize=15px&fontWeight=normal)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3.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4.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다 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이미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 신앙의 문제들은 항상 갈등의 연속이다.
*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강조한 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을 잊지 말라고 하였다.
* 우리가 하늘에 대한 초점을 놓치지 말고 살 때, 신앙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
* 어찌 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우리가 하늘의 시각을 잃게 되면, 하늘의 시각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때문에 혼란을 겪게 되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된다.
*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신실하시고, 미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은 진리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는가?
* 바울은 우리가 이미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고 말씀하신다.
*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는 베드로의 고백에서 알 수 있다. 벧전 2:11을 찾아보자

벧전 2:11

1.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다.
* 우리는 거류민이며 나그네이다. 즉,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아니다.
* 우리의 삶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 우리의 삶은 내세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바울은 이것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한다.
* 우리의 삶은 내세지향적인 삶을 살며, 영적인 존재이다.
*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부족함을 모르고 살아갈텐데,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한숨을 짓는 이유는 내세지향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이고, 이 세상이 최종적인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우리가 세상 어떠한 것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채워질 수 없다. 고후 4:18을 보면, 이러한 것에 대하여 좀더 명확하게 이야기 하고 있다.

고후 4:18

1.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 만을 쫓으며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향하여 살아가야 한다.
* 우리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다.
* 신령한 복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복이며, 이해할 수 없는 복이다.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신령한 복을 오해하고 있다.
* 과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다르다.
*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없으며,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없다.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다.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생긴다.
*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소유한 자 됨을 인정하는 고백이다.
*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다.
*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존재로 보신다.
* 씨앗이 뿌려진 땅과 씨앗이 뿌려지지 않은 땅을 세상 사람들은 구별할 수 없다.
*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품지 않은 자를 세상 사람들은 구별할 수 없다.
*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품지 않은 자에게는 영혼의 생명이 없다.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영혼의 생명이 심기워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이다.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이다.
*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에게 이식되었으면, 우리는 바뀌어진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
*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서 뛰는 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다.
*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느냐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우리에게 이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 생명이 있으면 감각이 생기기 시작한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가기 시작한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생명을 소유한 것이다. 우리가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는 곳으로 영혼을 바라보면서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 살아가는 존재이다.
*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거쳐 가는 곳이다.
*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그것이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는 자들의 경향이다.
* 우리는 근본적으로, 신분적으로 다른 존재이다.
*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 대한 갈등이 생긴다.
*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에게 이식되어 있다면, 우리 안에 근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과 열정이 일어난다.
*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에게 이식이 되면, 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가? 그 답은 심 30:20 말씀에 있다.

신 30:20

1.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시며, [나는 생명의 떡이니 받아먹으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고 하셨다.
* 누가는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생명의 주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골 3:4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하였다.

골 3:4

1.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약 4:14

1.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라는 말씀은, 우리는 참생명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참생명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참생명이다.
* 참생명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며,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달려가게 된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
*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이다.
*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공동체이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모든 상황이 정상화되어도 성도들 중 30%는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있다.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복은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큰 복이다.
* 새로운 생명이 왔으므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이 고후 5:17 말씀이다.

고후 5:17

1.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견디어 낸다.
*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자손들 중 30% 이상이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고 한다.
* 우리가 소유한 복은 생명을 소유한 복이다.

전 2:11

1.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 우리는 영원한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

빌 1:3-6

1.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2.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3.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4.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이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

요 10:10-12

1.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2.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3. 삯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헤치느니라

*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다면, 그 생명을 따라가는 복된 존재가 되어라.

요점

*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이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

기도 제목

*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가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하소서.

적용

* 올해 주일성수에 빠지지 않기를 실천해 보자.